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날 때부터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과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면서 누구의 죄로 그가 눈이 멀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잘 됨과 복됨의 형태가 신약에 이르러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과 저주된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특별히 나무에 걸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던 가장 저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하고 저주된 모습에 죽음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주시는 약속의 문을 여시는 새로운 길로(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 독일어로 바흐 또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부를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단순히 우리를 축복된 상태로 만들고, 축복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저주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다 실패된 모습인 것을 통해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 즉 새 창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언약학교는 새로운 장소를 구할 수도,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트심의 모습들이 실패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이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는 것이 선교사의 가장 큰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우리 학교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물론 학교가 이런 상황속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보이는 실패와 저주의 모습이 기독교인에게 더 이상 실패와

저주가 아닌 새 창조의 길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길을 여는 모습으로 사용되
어진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을 때 마음 한구석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겠지만 내 원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나 역시 주
님 우리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흠어짐이, 우리의 나누어짐이
더 큰 은혜로의 인도하심으로 전환되기를 믿으며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 기도제목 -

1. 예수님처럼 하나님앞에 순종할수 있도록